

# 외국인 유학생 전담관리반 개점휴업 왜?

### 광주 동구 코로나 예방 조치 유학생 344명 관리 위해 꾸려 출입국사무소 무성으로 연락처도 확보 못하고 발만 동동

광주시 동구가 광주지역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 전담관리반'을 꾸려놓고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성의한 태도로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예방조치에 나서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장, 베트남·네팔 출신 등 유학생 340여 명에 대한 출입국 기록과 연락처 등을 받아 여행경력, 동반 여행자, 의심증상 등을 확인하는 게 절실하지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정보 제공을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조선대와 조선이공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344명의 관리를 위한 '유학생 전담관리반'을 편성했지만 여태껏 연락처

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동구는 지난 24일부터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유학생 전담관리반'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조선대가 중국인 유학생(808명)을 전담 관리하는 대신, 동구는 중국을 제외한 타 지역 유학생을 밀착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도였다.

동구는 조선대의 베트남(303명)·네팔(16명) 출신 유학생과 88명의 조선이공대 유학생 중 기숙사 외에 거주하는 25명(베트남 22명, 우즈베키스탄 2명, 중국인 1명) 등 344명을 전담 모니터링하기로 계획

을 세웠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소극적 조치로 일부를 제외한 320여 명의 연락처를 못 구해 '개점휴업' 상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유학생들의 출입국 기록과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잠복기(14일)를 감안, 국내 입국 기간이 14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락처를 구하지 못하면서 동반 입국자 여부, 다른 지역 여행 이력, 발열·기침·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 등을 전화로 묻는 등 유학생별로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미루지고 있다.

동구는 그나마 통역을 구하기 쉽지 않아 전화상으로 전달이 곤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야 하지만 연락처 부재로 지난 28일 방문 일정을 취소하는 등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출입국 기록과 연락처 제공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뒤늦게 제공을 결정한 뒤에는 다른 업무를 들어 수차례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게 동구 설명이다.

동구는 이 때문에 기껏 제작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패키지'(마스크 20매, 손소독제, 체온계, 다국어 안내문)를 쌓아만 놓고 있는 형편이다.

동구는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조선이공대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25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전화를 돌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 문의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14일 이내 출입국 여부만 알아도 잠복기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감염 예방 활동을 수월하게 펼칠 수 있다"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속한 협조를 구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 예배는 집에서 1일 광주지역 대다수 교회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한 조치로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취소한 가운데 광주시 남구의 한 대형교회 정문에 가정예배를 권장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지만원 손해배상금 400만원 5·18단체, 대구에 성금 전달

5·18단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성금을 보낸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28 민주운동 60주년을 맞아 대구 공동체를 돕기 위해 성금 400만원을 대구직접심사자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성금은 5·18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만원씨 등에게 재판을 통해 받아낸 손해배상금으로 조성한 공익기금이다.

이 단체들은 "대구의 2·28민주운동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뤄냈다"면서 "민주화운동의 동지이자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연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준비 안된 '긴급 돌봄'·꼬이는 학사일정...지역 교육계 혼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지역 교육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추가 개학 연기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례 없는 대혼란을 극복할 꼼꼼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돌봄 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권장되고 있지만 집단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민간기업체 등에 강제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실행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개학 연기에 따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여름 방학일이 차례로 순연되고 수업일수 또는 방학일수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 학사 일정 조정에 애를 먹

고 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예비 고3들은 SNS에 담긴 중심으로 단체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는 등 면학과 진학 지도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시기에 자칫 학업성취도가 떨어지지 않겠다"며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상당수다.

사설학원들도 휴원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휴원하자니 손실이 너무 크고, 개인하자니 감염에 따른 위험과 그에 따른 비난을 감수할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 초·중·고 개학 또 연기 검토 사설학원들도 휴원 놓고 논란

이런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선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두고 '3~4월 절정설', '확진자 1만명설' 등이 나오면서 "교육대란이 길어질 수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는 감염병 방지의 마지막 보루나 다름 없다"며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유·초·중·고는 1~2주일 더 개학을 늦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1 | 해질 18:29 | 달뜨기 11:06 | 달지기 00:27

맑은 하늘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4/9	보성	맑음	3/10
목포	맑음	3/7	순천	맑음	5/12
여수	맑음	4/12	영광	맑음	3/7
나주	맑음	4/10	진도	구름많음	4/8
완도	구름많음	5/10	진주	맑음	2/10
구례	맑음	4/11	군산	맑음	2/7
강진	구름많음	4/10	남원	맑음	3/10
해남	구름많음	4/8	흑산도	맑음	5/7
장성	맑음	3/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북)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면바다(남)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남해서부	안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면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면바다(동)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보통	뇌졸중	보통
보통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51	06:42
여수	--:--	18:42
	07:13	01:21
	19:38	13:11

◇ 주간 날씨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	☀	☀	☁	☁	☁	☁
1/13	3/10	0/9	-1/12	3/13	6/17	6/15

### 역발상 관광...제주행 발길 꾸준

항공·렌터카 4배까지 저렴

광주발 항공 탑승률 안줄어

“중국인 여행객이 없으니 줄 설 필요가 없어. 항공요금·렌터카 요금도 훨씬 싸요”

코로나19로 국내외 여행 자제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제주도를 찾는 지역민들의 발길이 꾸준하다.

무비자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단체 여행객이 줄면서 편하고 가격 대비 만족도 높은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일소문이 나면서다. 50% 이상 급감한 KTX 이용객에 비하면 감소폭도 크지 않다.

1일 한국공항공사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발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기 탑승률은 95.1%로, 전년도 같은 기간(93.9%)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지난 17일 탑승률도 94.7%로 전년도 같은 기간(99%)에 견줘 4.3% 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지난 20일 광주승정역에서 출발하는 상행선 KTX열차의 탑승률은 41.7%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2.1%)보다 10.4% 줄었다.

울 들어 KTX 광주승정역을 찾은 이용객(17~25일)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4% 떨어졌다. 제주행 항공기 탑승률도 줄었다. 하지만 KTX나 고속버스 승객 감소율에 비하면 광주발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평균 탑승률이 전년도에 비해 22.6%포인트 감소한 것은 그나마 '선방'했다는 말도 나온다.

여행업계에서는 '역발상' 관광객들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제주 여행지마다 긴 줄을 만든 중국인 여행객들이 사라지면서 여유롭게 제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점 때문에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다른 지역보다 적어 비교적 청정현이다 '맛집'으로 소문난 유명 식당들도 요즘엔 줄을 설 필요가 없고, 항공요금과 렌터카 등도 2~4배까지 떨어져 가성비가 높아진 점 등이 제주행을 선택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